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입력: 2025.09.10 11:22 / 수정: 2025.09.10 11:25

현장 소통 강화로 농지은행사업 이해도 높인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 김형중 기자

[더팩트 | 공주=김형중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가 9일 이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을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 사업을 안내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이다. 현장 중심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마을 이장단이 농업인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만큼 사업 설명 수요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공주시사 사업 담당자들은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희생지원사업, 과원 규모화사업, 농지이양 은 퇴직불사업 등 주요 농지은행사업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가 잦은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이장단은 임대차 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의 전환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

박재근 지사장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사곡면 이어 이인면서 농지은행사업 안내

고종선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5-09-10 11:22



한국농어촌공사가 9일 이인면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진행했다. (농어촌공사 공주시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지사장 박재근)는 9월 5일 사곡면에 이어 9월 9일 이인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내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안내를 위한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고객센터'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서비스 제고 및 현장중심의 고객만족을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각 마을의 이장은 농업인과 가장 자주 접촉하면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데, 농지은행사업은 사업의 종류가 많아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장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통해 공주시사의 각 사업담당자는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관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각 이장단에 제공하며 농지은행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 했다. 공주=고종선 기자

농어촌公 공주시, 농지은행사업 '찾아가는 고객센터'운영

✎ 김태영 기자 | ④ 승인 2025.09.10 13:50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한 고객 중심 서비스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주시 제공.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는 관내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안내를 위한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고객센터'는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서비스 제고 및 현장 중심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농지은행사업은 사업의 종류가 많아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장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주시사의 각 사업담당자는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관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각 이장단에 제공하며 농지은행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다.

이장단은 임대차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의 전환 등 최근 제도 변화가 많이 이루어진 '농지임대수탁사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재근 지사장은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모든 농업인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현장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지은행사업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등 농업인 대상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공주시는 지속적으로 각 읍·면의 이장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 농지은행사업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 김상훈 기자 2025.09.10 14:06

현장 소통 강화 및 고객 중심 서비스 최대 확대
고객 상담 요구 사항, 현장 해결 방안 제시 멘토링
정보 교류 및 사업 종류 설명과 이장단 의견 최종 수렴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농지은행사업의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사진제공=농촌공사 공주시사)

[충남일보 김상훈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농지은행사업의 일환으로 10일부터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난 5일 사곡면에 이어 9일 이인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내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고객센터'가 운영된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농어촌공사의 농업인 방문 서비스의 경우 고객의 각종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자리가 마련돼 현장에서 이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됐다. 또한 고객센터 제고 및 현장중심의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현 가능성도 추진된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각 마을 이장들은 "농업인과 가장 자주 접촉하면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우리로써 이번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각 사업의 종류마다 자세한 설명이 갖춰지기를 바란다"며 "여기에 이장단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최대 수렴될 수 있도록 고객센터 확충에 지사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이번 '찾아가는 고객센터'는 공주시사의 핵심 과제로 각 사업담당자들이 현장 출동에 의해 각 장소에서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희생지원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농지양은퇴직불사업 등에 관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이장단에 제공한다. 여기에 건의사항도 수렴하는 수탁사업도 실시된다.

이에 앞으로 이장단들은 임대차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의 전환 등 최근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된다.

박재근 공주시사장은 "앞으로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모든 농업인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현장에서 농업인이 필요시되는 농지은행사업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여기에 농업인 대상 서비스 향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공사 공주시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객센터 운영을 통해 각 읍·면의 이장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센터 운영을 상시적으로 교육 및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어촌公 공주지사, 농지은행사업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 이효섭 기자 | ㉠ 승인 2025.09.10 14:08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한 고객 중심 서비스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10일 사곡면. 이인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내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안내 했다.

이번「찾아가는 고객센터」는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서비스 제고 및 현장중심의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공주지사의 각 사업담당자는 농지임대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에 관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각 이장단에 제공하며 농지은행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이장단은 임대차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의 전환 등 최근 제도 변화가 많이 이루어진 '농지임대수탁사업'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박재근 지사장은 "현장에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지은행사업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등 농업인 대상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이효섭기자



이효섭 기자 9922hs@hanmail.net